

광주시 ‘우수정책 베스트 10’ 시민이 뽑는다

온라인 등서 후보 15개 선정
21일 경진대회 330명이 확정
공무원 중심 평가방식 탈피
“시민이 바라는 새 정책 발굴”

광주시가 오는 21일 ‘2023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를 열고 ‘광주시 올해의 베스트(Best) 10’을 뽑는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설문, 현장 투표, 지역사회 리더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정책 15개를 확정, 발표했다.

먼저 신경제 도시 분야에서는 △100만

평 미래차 신규 국가산단 유치 및 220만 평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광주 역 일원 호남권 최대 규모 스타트업 창업 밸리 조성 △AI데이터센터 구축, AI영재 고 설립 추진 등 대한민국 AI혁신거점 조성 등이 후보다.

꿀잼 도시 분야는 △대한민국 최고의 광주 복합쇼핑몰 추진 △쉽과 힐링의 공 원도시 광주 조성(민간공원 조성사업) △광주시립수목원 개원 및 운영 등이 후보로 선정됐다.

돌봄 도시 분야는 △누구에게나 돌봄안 전망 ‘광주다움 통합돌봄’ △장년세대 인생2막 지원 ‘50+종합지원체계 확대’ △맘편한 내일, 광주아이키움2.0 등이 선정됐다.

안심 도시 분야는 △도시철도 2호선 총 사업비 증액 및 2단계 구간 건설공사 조기 착공 △탄력 받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도심 고속도로망 확충 및 혼잡도로 적기 개선 등이고 혁신·교육 도시 분야 △노후관 정비 강화를 통한 유수율 제고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 △가뭄위기 대응, 대체수원 확보 등 장단기 전략 마련 △폐기물이 자원이 되는 친환경 자원회수시설(소각) 설치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정책들은 광주시의 신경제지도 구축을 담당하게 될 ‘100만평 미래차 신규 국가산단 유치 및 220만평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꿀잼도시 광주를 실현시킬 ‘대한민국 최고의 광주 복합쇼핑몰 추진’, 대한민국에 돌봄민주

주의라는 화두를 던진 ‘누구에게나 돌봄 안전망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광주시의 손에 잡히는 변화를 주도하는 정책들이다.

광주시는 매년 연말 우수정책을 선정했다. 하지만 시민의 직접평가는 일회성 설문조사에 그치고 전문가·공무원 중심의 평가로 진행돼 시정의 주체인 시민 참여가 그리 높지 않았다.

이에 민선8기에서는 기존 우수정책 평가의 단점을 보완해 일회성 평가에서 연중 지속적 평가로, 전문가·공무원 중심에서 시민 중심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혁신적으로 전환했다.

이에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5개 후보정책을 대상으로 ‘2023년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심사는 각계각층에서 엄선된 시민평가단(300명)과 시의원, 기자, 교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평가단(30명)에서 진행, ‘2023 올해의 베스트 10’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기획한 시민 중심의 정책평가를 통해 시민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며 “시민 평가와 의견수렴을 통해 우수정책은 더욱 확산시키고, 시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광주시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용처 아이디어 공모

전남도, 13일까지 진행

전남도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용처 확대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복지카드 사용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규 사용처 추가 발굴을 위해 실제 카드를 사용하는 청년을 포함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의견 수렴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남도 청년정책 누리집이나 직접 구글링 주소(https://forms.gle/dJYKSr4b2mCoTLDdA)에 접속해 참

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청년정책 누리집(brand.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사용처 제안 분야는 문화·자기계발·관광 등 문화복지 분야로 국한된다.

현재 청년문화복지카드는 공연관람·도서 구입·학원 수강·체육시설 이용 등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접수 제안은 적합성, 활용성, 창의성 3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심사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수 제안자 총 5명을 선정해 5만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최황지 기자

광주시, 노인정책 평가 포상금 전액 기부

대우위니아 제품 구매 기탁

광주시가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정책 평가’에서 받은 포상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광주시는 5일 시청 복지건강국장실에서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김종호 광주시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열고, 지자체 평가 포상금 1000만원으로 구매한 김치냉장고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대우위니아그룹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니아 협력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

해 김치냉장고 16대를 구매해 물품으로 기탁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2017년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장기요양요원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실행계획(2021~2023년)’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적극 나섰다.

최권범 기자

전남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보험료 최대 100%

전남도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상해와 질병 발생 시 농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보험 가입 지원 관련 전체 사업비는 도비 14억원을 포함해 약 150억원 규모다.

가입 보험료는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으로 총 10만1000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인은 20%(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오는 15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사고유형과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원한다.

사망 시엔 유족급여금으로 6000만원~1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장례비 100만원 등을 보장한다. 보험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 상품은 개인 상품과 가족형 상품으로 나뉘며 장애 유족급여금은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다.

최황지 기자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지역협업위원회 회의

강기정 광주시장,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정성택 전남대 총장, 김춘성 조선대 총장 등이 5일 전남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회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지역협업위원회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전남도 투자사절단, 캐나다서 유치 활동

자동차·철강·에너지기업 등

전남도가 캐나다의 자동차·철강·에너지 산업 거점 지역인 토론토시와 윈저시를 방문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펼쳤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일자리 투자유치국은 지난 1일까지 6일 간 투자유치 사절단을 토론토와 윈저로 보내 자동차·철강 제조 분야 잠재 투자기업 발굴을 추진했다.

사절단은 전남의 역점산업과 연계한 북미시장 투자유치를 위해 전남도와 녹색에

너지연구원, 지역 강소기업인 (주)에너지, ㈜티이에프로 구성했다.

먼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소재한 기업(EG energy, COFAN)을 방문해 북미 에너지 시장의 동향과 제도를 알아보고 향후 상호협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코트라 캐나다 토론토 무역관에선 현지 자동차, 철강 제조 분야 핵심 기업의 전남 유치와 전남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사절단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소재한 기업(Centerline, Southwest-

ern manufacturing, REKO)도 방문했다.

이곳에선 조선·철강·이차전지 산업 기반 시설을 활용한 원자재 수급과 전문인력 확보, 투자 인센티브 등 전남도의 다양한 투자 지원을 소개했다.

김대인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투자유치 사절단 활동을 통해 캐나다 기업의 전남 투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캐나다 윈저투자청, 현지 기업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광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용하세요”

납세자 고충민원 해결

광주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납세자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등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은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제외된다.

지방세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

항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다.

최진아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이 원만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일보 구독
www.jnilbo.com